06

현대중공업그룹 웹진 매거진 H

NO.051

웹진 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풍경 오크 나무들 1954년 | 45.7 x 61cm
그림 그랜마 모지스 1860~1961년 | 늦은 나이에 활동을 시작, 계절이 담긴 풍경화로 사랑받은 미국의 국민화가

INSIDE

Feature	아비커스, 세계 최초로 대형선박의 자율운항 대양 횡단 성공	03
People	아프간 기여자들의 두 '키다리 아저씨' -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지원부 김창유·김병수 책임매니저	08
News	그룹사 주요 소식	11
Heritage	현대중공업 육상 건조 공법, 세계 조선사(史) 신기원 이룩 - 2004.6	15
ESG	임직원 참여로 'ESG경영 문화' 구축 나섰다! - 현대중공업 ESG경영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17
Sharing	식사와 희망을 함께 전하는 1%나눔 진지방	21

STORY

Trend	돌아온 함성과 떼창, '올 여름엔 공연 보러 가요!'	25
Health	건강검진 결과표, 제대로 보기	28
Culture	요알못들을 위해 K사우가 간다! - 계란과자와 밀크쉐이크 편	30
Story +	사우의 글 - 내 인생의 관계	32
	잡학사전 -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 인간관계 이야기	33
Hstagram	나의 운동을 소개합니다	34
Quiz	6월호 퀴즈	35

INSIDE

Feature

People

News

Heritage

ESG

Sharing

선박 자율운항 시대의 개막을 알리다

아비커스, 세계 최초로 대형선박의 자율운항 대양 횡단 성공

글 아비커스 경영지원팀

“저기 보입니다!”

2022년 6월 2일 오전 11시 30분. 18만 세제곱미터급 초대형 LNG운반선 ‘프리즘 커리지(Prism Courage)’호가 충남 보령 LNG터미널에 입항했다. 이 선박에는 우리 그룹의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가 개발한 2단계 자율운항솔루션인 하이나스(HiNAS) 2.0이 탑재되어 있었다. 자율운항 기술로 선박을 제어해 대양을 횡단한 세계 첫 사례가 역사에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아비커스가 자율운항 대양 횡단에 성공한 초대형 LNG운반선 프리즘 커리지호

‘하이나스2.0’으로 세계 조선史 새로운 장 열어

현대중공업그룹 1호 스타트업 회사로 출범, 선박 자율운항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아비커스가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 기술을 통해 대형선박의 대양횡단에 성공했다. 5월 1일 미국 프리포트(Freeport)에서 시작된 아비커스의 항해는 파나마 운하를 거쳐 태평양과 일본 해역을 지나 지난 6월 2일 대한민국 충남 보령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양횡단에 나선 선박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세계 우수선박에도 선정된 바 있는 SK해운의 LNG 운반선 ‘프리즘 커리지’호다. 프리즘 커리지호는 총 운항 거리의 절반이 넘는 약 1만 km를 아비커스의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기술인 하이나스 2.0을 적용해 운항했다.

하이나스 2.0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자율운항 레벨 4단계(degree 1~degree 4)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2단계 자율운항 기술은 기존 1단계 기술인 인지, 판단 기능에 더해 조종 및 제어까지 가능함을 의미한다. 선원이 승선하기는 하지만, 기존 선원의 역할이었던 인지(recognition), 판단(decision), 제어(control)까지 모두 자율운항 기술이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항해는 기술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위해 미국선급협회(ABS) 및 한국선급(KR)의 실시간 모니터링 하에 진행됐다. 아비커스는 미국선급으로부터 이번 자율운항 대양횡단의 결과증명서를 받은 뒤 올해 안으로 하이나스2.0을 본격 상용화할 계획이다.

프리즘 커리지호,
해양 모빌리티의 미래를 싣고 출항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처음은 항상 어렵다. 아비커스의 대양횡단도 출발 전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LNG의 경우 시시각각 가격과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판매처가 계속 변경된다. 그래서 LNG운반선의 최종 도착지는 운항의 초·중반까지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 항로도 늦게 확정된다. 이번 항해도 마찬가지였다. 출항 열흘 전까지만 해도 프리즘 커리지호는 미국에서 출발해 영국으로 도착하는 2주 간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출항 직전, 도착지가 충남 보령으로 급하게 변경됐다. 항로가 변경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두 배나 길어진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항해에 함께한 아비커스의 연구원들도 더 길어진 여정을 소화해내야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자율운항의 제어를 담당하는 조종제어연구팀의 김대혁, 박진모, 최휘용 책임연구원과 대형선박 자율운항 기술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대형선자율운항팀의 장왕석 책임연구원 등 총 4명의 아비커스 연구원들이 직접 프리즘 커리지호에 탑승, 항해 전 과정을 함께했다. 지난 4월 28일, 아비커스 대원들은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5월 1일, 해양 모빌리티의 미래를 실은 프리즘 커리지호가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을 울렸다.

미국 프리포트항을 떠난 프리즘 커리지호는 머지않아 태평

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통로, 파나마 운하에 진입했다. 노을 지는 전경이 장관이라고 알려진 파나마 운하지만 연구원들은 바깥 바람을 쐴 일순의 여유조차 없었다. 자율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하이나스2.0의 테스트를 위한 카메라 정비와 시스템 설치 등을 마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 밤을 꼬박 새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5월 10일, 프리즘 커리지호는 파나마 운하 통과와 동시에 본격적인 자율운항에 돌입했다.

▲육지와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위성-LTE 통신 모듈을 설치하는 모습

‘하이나스2.0’ 진가…
충돌 회피 성공률 100%의 기록

처음 일주일 동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자율운항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이나스2.0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A/S 및 엔지니어링 전문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개발한 통합스마트십솔루션(ISS, Integrated Smartship Solution)을 기반으로 선박의 항로를 생성한다. 인공지능(AI)이 주변 환경 및 선박을 인지해 최적의 항로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선박의 조타명령까지 제어하는 이 기능이 바로 ‘선박 최적항로 서비스(weather routing)’다.

▲하이나스2.0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아비커스 연구원들

주간 자율운항 테스트의 핵심은 선박 최적항로 서비스가 잘 작동하는지, 다른 선박들과의 돌발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기능(collision avoidance)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돌발상황 감지 기능의 경우, 다른 선박들이 운항 경로에 존재할 때만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다른 선박이 나타날 때까지 기약 없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약 5일 만에 대형 선박 2대를 만났고, 하이나스2.0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 완벽하게 인지해 최적의 경로를 생성해냈다.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인 시작이었다. 이후로도 하이나스2.0은 프리즘 커리지호가 마주친 5척의 선박을 미리 인지해 충돌을 피하면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찾아냈다. 아비커스 대원들은 기쁨의 함성을 바다 위로 내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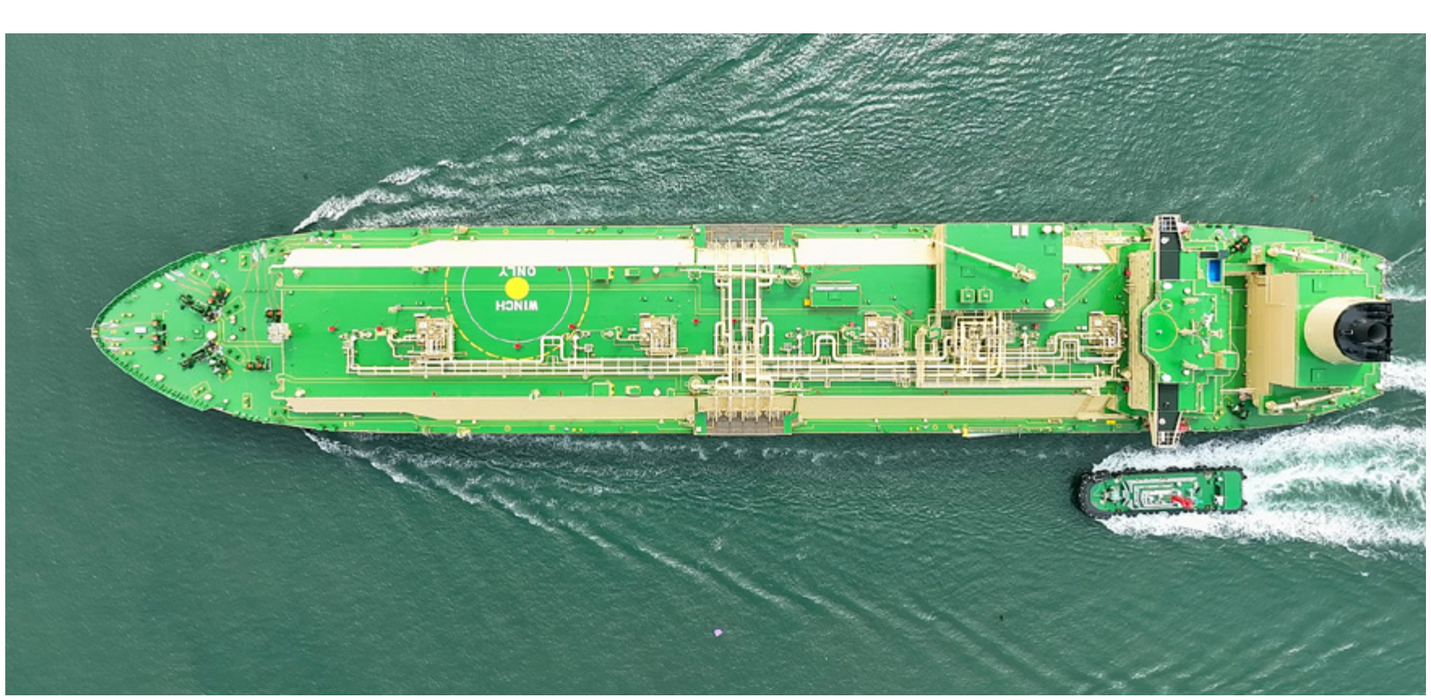
주간 자율운항 테스트를 마친 프리즘 커리지호는 5월 17일부터 24시간 풀타임 자율운항에 들어갔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연구원들도 돌아가며 야간 당직근무를 서기 시작했다. 밤이 찾아오자 하늘과 바다는 깜깜한 암흑 속에 잠겼고, 프리즘 커리지호도 최소한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등한 후 하이나스2.0에 의지해 어둠 속 운항을 이어 나갔다. 이렇게 며칠간 이어진 테스트 결과, 하이나스2.0은 총 100척의 선박을 미리 인지해 모두 안전하게 피해 물길을 열어가며 100%의 회피 성공률을 달성했다. 특히 100척 중 70척은 ‘선박 최적항로 서비스’가 설계한 경로를 중간에 수정하지 않고도 회피해 내 하이나스2.0의 진가를 톡톡히 보여줬다.

미래 해양 모빌리티의 청사진 보여준 33일의 여정

6월 2일, 최종 목적지인 보령 LNG터미널에 프리즘 커리지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항구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드론 2대가 선박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을 통해 대양 횡단을 성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촬영했다. 갑판 위에서는 환희와 피로가 뒤엉킨 아비커스 김대혁 조종제어연구팀장이 대양횡단의 성공을 기념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뿌듯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묻어나왔다. 나머지 연구원들은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때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마지막까지 하이나스2.0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며, 데이터가 수신되는 순간마다 녹화 영상을 육지로 전송했다. 잘 해내고 있음을, 성공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벅찬 가슴으로 이야기했다. 프리즘 커리지호가 보령항에 접안하는 순간, 배 안팎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세계 조선사에 한 획을 긋게 될 33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번 대양횡단에서 프리즘 커리지호는 총 100여 차례의 충돌 위험을 회피했다. 더불어 최적의 속도로 지정된 항로를 자율운항하며, 연료 효율을 7%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은 5% 절감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대양횡단에 참여한 조종제어연구팀 김대혁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양횡단 성공은 현대중공업그룹과 아비커스가 그려나갈 미래 해양 모빌리티의 청사진을 예고한 것"이라며, "하이나스2.0의 고도화를 통해 자율운항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프리즘 커리지호의 고영훈 선장은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기술은 항로 유지와 자율변침, 그리고 선박 피항조선 등에 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편리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이번 대양횡단에서 총 100여 차례의 충돌 위험을 회피한 프리즘 커리지호

자율운항으로 조선입국(造船入國) 재현

초기 자동차 자율주행 시장에서 승기를 잡았던 기업은 세계 최초로 딥러닝 기반의 주행보조시스템(ADAS)를 개발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모빌아이(Mobileye)'다. 모빌아이는 시장 선점을 통해 확보한 압도적인 비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세계 주행보조시스템 시장의 90%을 점유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종합 반도체 회사인 인텔(Intel)에 150억 달러(한화 약 18조 8,000억 원)에 인수됐다.

선박 자율운항 시장은 어떨까. 자율운항과 자율주행은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동차에 적용되는 레이다, AIS, 라이다, 비전 등 센서 융합 및 인공지능 기반의 인지 기술뿐만 아니라 선박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동역학 기반의 판단 및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배와 자동차의 차이만큼이나 자율운항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력은 다르다. 아직 바다 위에는 자율주행 시장의 모빌아이만큼 헤게모니를 거머쥔 강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커스는 이번 자율운항 대양횡단의 성공을 통해 이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누구인지 세계 조선·해운업계에 똑똑히 보여준 것이다.

사실 선박의 자율운항 자체는 그리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과거 일본 MOL(Mitsui OSK Lines)사의 컨테이너선 '미카게'호, 노르웨이의 비료 기업인 야라(YARA)인터내셔널이 콩스버그(Kongberg)사와 공동 개발한 '야라 버클랜드'호, 영국 롤스로이스사의 '페리'호 등 다양한 자율운항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아비커스가 포항 운하에서 12인승 크루즈를 이용, 국내 최초의 선박 완전 자율운항을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은 모두 작은 선박이 300km 미만의 짧은 거리를 운항한 것이다. 대형 선박이 자율운항 기술을 통해 대양을 횡단한 사례는 전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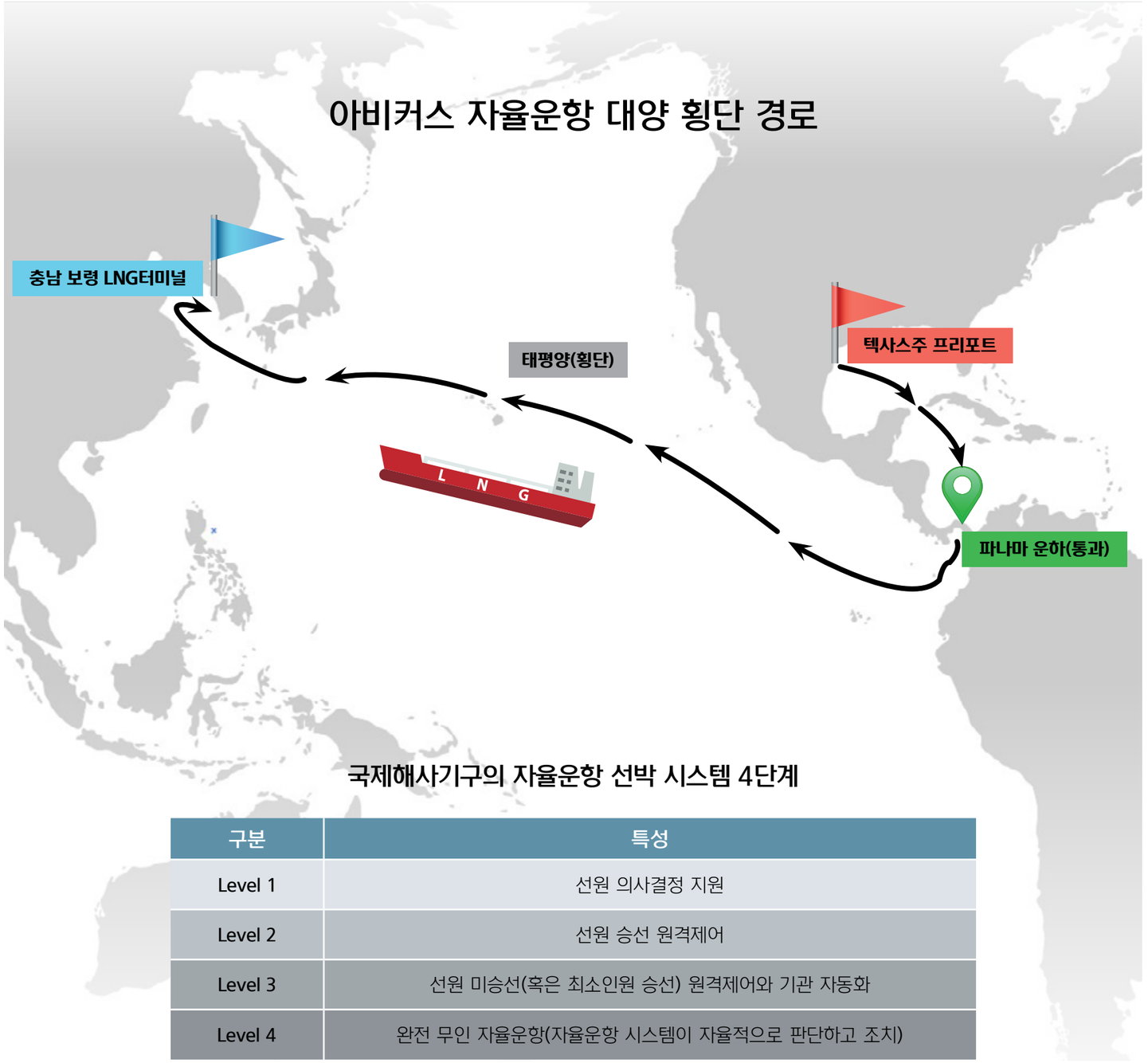
아비커스의 하이나스2.0은 이번 대양횡단에서 총 2만km의 운항 거리 중 해상법에 어긋나거나 구조적으로 자율운항이 불가능한 파나마 운하와 일부 좁은 협곡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구간을 자율운항했다. 아비커스는 하이나스의 지속적인 기술 테스트를 거쳐 보다 고도화된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말 울산시 고래관광선에 하이나스2.0을 탑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울산시와 공동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비커스는 연간 100척 이상의 대형 선박에 항해보조솔루션을 공급, 대량의 선박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독보적 성능의

인지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대형 선박용 자율운항 솔루션의 고도화가 미래 자율운항 시장 선점의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먼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최고의 기술을 개발한다."

아비커스가 지난해 1월 출범하며 내세운 비전이다. 아비커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운항 솔루션 공급자를 넘어 자율운항 기반의 해양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비커스는 이번 대양횡단에 적용한 대형 선박용 솔루션과 더불어, 레저보트 등 소형 선박의 자율운항 솔루션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건조하는 대형 선박에 자율운항 기술을 적용, 실증하며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척 이상 건조되는 레저용 보트를 위한 맞춤형 자율운항 솔루션을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해양 레저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아비커스는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율운항 전문 회사로 성장했다. 기대가 클수록 부담도 커지지만, 아비커스는 이 부담이 싫지만은 않다. 대양횡단을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한 아비커스가 다음에는 또 어떤 기술로 우리에게 새로운 바다를 선보일지 기대된다. Ⓗ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 4단계

구분	특성
Level 1	선원 의사결정 지원
Level 2	선원 승선 원격제어
Level 3	선원 미승선(혹은 최소인원 승선) 원격제어와 기관 자동화
Level 4	완전 무인 자율운항(자율운항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조치)

아프간 기여자들의 두 '키다리 아저씨'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지원부 김창유·김병수 책임매니저

글 웹진편집실

Editor's Note | 최근 울산 동구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특별기여자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달 웹진 피플 섹션에서는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협력사에 취업한 특별기여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착을 가장 가까이서 돕고 있는 동반성장지원부 김창유·김병수 책임매니저를 만나보았습니다.

김병수 책임매니저
김창유 책임매니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어울림’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피해 한국으로 넘어온 29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현대중공업 협력사 12곳에 취업했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159명이 울산에 정착해 이전과 전혀 다른 언어와 음식, 생활에 적응 중이다. 모든 게 생경하고 조심스러운 상황, 이들에게 다가와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다. 바로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지원부 김창유 책임과 김병수 책임이다.

두 사람은 지근거리에서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협력사 입사부터 자녀들의 학교 입학, 가족들의 한글 및 한국 문화 교육까지, 김창유 책임과 김병수 책임은 지난 4개월간 아프간인들이 한국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때로는 소통의 창구로 나서 아프간인들의 의견을 모아 울산시와 교육청에 전달하고,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했다.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는 교복이나 책가방, 학용품 등을 사러 같이 가기도 했다.

김창유 책임과 김병수 책임은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나아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29가구, 159명의 삶을 조용하지만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

159명의 새로운 가족을 책임지다

동반성장지원부는 협력사의 인력 수급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다. 법무부에서 현대중공업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채용 의사를 물어오자, 김창유 책임과 김병수 책임은 특별기여자들이 정착 교육을 받고 있던 전남 여수로 달려가 그들을 만났다. 현대중공업은 엔진기계사업부 협력사에서 29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29명의 근로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챙겨야 했는데, 부인들과 갓 태어난 아기부터 내년에 대학생이 될 자녀까지 총 130명에 이르렀다.

“원래는 157명이었는데, 울산 오고 나서 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 한 번은 산모가 배가 아파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동네병원에서는 출산을 못 하는 상황이었죠. 그 때 김병수 책임이 직접 차를 운전해 울산대병원에 데리고 가서 가까스로 격리병동에서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아버지들의 직장 적응이었다.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갑작스레 현장 일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비유하자면 동네 병원에 있는 50대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루 아침에 마음을 굳히고 여기서 새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3개월 내로 아버지들 적응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배관·도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처음 해보는 일인 탓에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보다 힘든 건 없다. 주변 동료들의 배려와 도움 속에 기량도 일취월장하고 있다.

단번에 외워진 102명의 이름

다음은 아이들 입학이었다.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던 탓에, 김병수 책임은 매일 30명씩 병원에 데려갔다. 접종 전 진료 카드를 써야 했는데, 아이들이 작성 방법을 모르니 직접 진료 카드를 하나하나 영어로 작성했다. 그 덕분에 아이들 이름을 전부 외우게 되었다. 또, 보통의 경우라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예방접종을 딱 한 달 만에 모두 끝냈다.

한 명씩 교복도 맞췄다. 남자아이들은 5분이면 끝났지만, 여자아이들은 한 명 당 30분이 넘게 걸렸다. 여학생들은 교복을 고를 때 바지 대신 치마를 고집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노출을 못하잖아요. 설령 속바지를 입어야 하더라도 전부 치마를 택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명찰에 적힐 이름을 한글로 정하는 것도 일이었다. 이를테면, 원어 발음으로 ‘사피꿀라’인 경우에는 이름에 ‘꿀’이 들어가는 건 이상하다며 ‘사피쿨라’로 고치는 식이었다.

최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사진을 촬영했다. 원래 계획은 임시 거주지 입주 전 회사 투어도 하고 가족사진도 찍으면서 첫날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사 일정도 촉박하고 여러모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아쉬움은 도움의 손길을 타고 거짓말처럼 해결됐다. 울산경찰청에서 섭외한 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지회는 촬영과 함께 사진을 액자에 담아 각 가정에 전달했고, 촬영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회사에서 준비한 할랄 뷔페를 먹으며 마술공연과 풍선 만들기 체험 등을 마음껏 즐긴 이날은 울산으로 이사온 모든 아프간 식구들에게 잊지못할 기념일이 되었다.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대화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김창유 책임

베풂 통한 어울림으로 인연 맺어

“이제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어울림’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책임매니저는 자율방범대나 플로깅(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아프간인들이 앞장서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빨리, 그리고 마음 편히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프간인들이 중앙아파트에 머무는 기간은 2년이다. 그 시간 동안 김창유 책임과 김병수 책임은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2년이 지나더라도 ‘임무 종료’는 아니다.

“퇴사하는 날까지 해야죠.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서 업무라는 생각도 안 듭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다행이고, 저희의 마음을 잘 받아줘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노력 덕분에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게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 울산도, 현대중공업도 그들의 삶을 받아들였다. 그들도 마찬가지다.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받아준 지역사회와 회사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 Ⓗ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지원부 김창유·김병수 책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프간 기여자 지원 업무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기존 업무에 새로운 일이 더해진 거라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래도 회사와 동료들이 여러 면에서 많이 배려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친해지다 보니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애가 학교를 잘 가야 하는데,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야 하는데’ 하는 내 새끼 키울 때도 안했던 고민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프간분들의 한국어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은 저희를 부를 때 사원증을 보고 이름을 막 불러요. 학교에 다니고 나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버지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를 섞으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됩니다. 어머니들은 계속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어서 머지않아 잘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종교는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요?

음식이나 종교 역시 최대한 우리나라 룰을 지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한국 음식을 다 먹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표시해서 주니까 본인들이 보고 빼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근무시간에는 기도를 못 한다’ 이렇게 명확히 규칙을 제시하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원래는 개학 날에 맞춰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3월 21일 첫 등교할 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한국어와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 들으려 외출을 많이 하면서 표정들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입학 당시 반대 여론이 존재했는데,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인식이 좀 어떤가요?

처음과 비교하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민망할 정도로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 같아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인식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그룹사 주요 소식

현대중공업그룹

그리스 조선해양 박람회서 차세대 저탄소 기술력 선보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일렉트릭 등 현대중공업그룹 5개 계열사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포시도니아(Posidonia) 2022'에 참가해 친환경 미래 기술을 선보였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LNG 추진선, LNG 벙커링선 등 친환경 선박을 전시하고, 메탄올, 에탄 등 차세대 연료 관련 기술을 소개했다. 또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이 가진 차별화된 기술력을 알렸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및 LNG-FSRU(부유식 저장·재기화설비) 개조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노후 LNG선을 FSRU로 개조하는 솔루션은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LNG 수요의 대응책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과 정기선 사장, 현대중공업 한영석 부회장과 박승용 부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고객들과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

아비커스, 세계 첫 자율운항 대양횡단 성공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가 세계 최초로 대형 선박의 자율운항 대양횡단에 성공했다. 아비커스는 최근 18만 입방미터(㎥)급 초대형 LNG운반선 '프리즘 커리지(Prism Courage)'호에 아비커스의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HiNAS) 2.0을 탑재해 이 선박의 자율운항 대양횡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선박은 지난 5월 1일 미국 멕시코만 연안의 프리포트(Freeport)에서 출발해 33일간의 운항을 마치고 6월 2일 충남 보령 LNG터미널에 도착했다. 총 운항 거리의 절반이 넘는 약 10,000km를 하이나스 2.0을 적용해 자율운항했으며, 이 기술을 통해 최적의 경로와 항해 속도를 생성해 운항하며 연료 효율을 7%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은 5% 절감했다. 특히 운항 중 다른 선박을 비롯한 장애물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해 총 100차례의 충돌 위험을 모두 회피했다. 아비커스는 미국선급(ABS)으로부터 이번 자율운항 대양횡단의 결과증명서를 받은 뒤 올해 하반기 중 하이나스 2.0의 본격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

세계 최대 CO_2운반선 개발 협력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현대중공업, 현대글로비스, 지마린서비스, 미국선급협회(ABS), 마샬아일랜드기국과 함께 7만 4,000입방미터(㎥)급 초대형 액화이산화탄소(LCO_2)운반선에 대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JDP)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참여사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을 개발하고, 국제해사기구의 액화가스운반선에 대한 국제협약(IGC코드)에 맞춰 설계 검증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운항 중 탱크 압력을 유지해 화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화물저장시스템(CCS)과 화물운영시스템(CHS)의 고도화에 나선다. 또한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에 총 9개의 원통형 탱크를 적용해 적재량을 극대화하고, LNG추진엔진도 탑재해 환경규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와 지마린서비스는 액화이산화탄소의 해상운송과 선박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을 담당하며, ABS와 마샬아일랜드기국은 선박의 품질 및 성능 검증, 그리고 기본설계 인증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기술자문 활동으로 협력사 역량 강화 나서

현대중공업은 최근 사내·외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자문 주요 활동 사례를 정리해 책자로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3곳의 사내·외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술자문 주요 사례 128건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사내 협력사 인원의 일대일 현장 지도를 통한 기술역량 향상 ▲협력사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자 역량 강화 ▲설계·작업방법·안전 개선 자문 등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 자문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협력사들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관리 역량 강화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지도 등으로 기술자문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사례집 또한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부터 퇴직 숙련 기술자들이 사내·외 협력사를 직접 찾아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협력업체 기술자문제도'를 도입, 협력사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동반성장에 힘쓰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국내 첫 전기추진 여객선 건조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14일 '스팀패킷(Steam Packet)' 사의 2만5천톤(GT)급 로로여객선(RO-PAX) 1척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으로부터 수주한 2천400톤급 최첨단 ICT 융합 스마트 여객선 1척에 대한 진수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미포조선 신현대 사장과 각 선주 및 선급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두 선박은 모두 발전용 엔진과 축전지를 이용해 선박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로 추진되는 친환경 여객선으로, 항만 이·접안과 비상시에 선박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에 저장된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로로여객선은 저진동·저소음 설계와 고급형 인테리어로 승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했으며, 스마트 여객선에는 ▲'LNG 이중연료(DF) 엔진시스템' ▲'직류 그리드(DC Grid) 기반 전기추진시스템' ▲'지능형 통합제어시스템' ▲'스마트 솔루션' 등 핵심 ICT 기술들이 융합 적용됐다.

현대삼호중공업

초대형 LNG운반선 4척 동시 명명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5월 24일 노르웨이 크누센사가 발주한 17만 4,000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4척의 동시 명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현대삼호중공업 김형관 대표이사와 선주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4척의 선박은 각각 스페인의 지명을 딴 '산탄데르(Santander) 크누센', '우엘바(Huelva) 크누센', '페롤(Ferrol) 크누센', '엑스트레아두라(Extremadura) 크누센'호로 명명됐다. 이 선박들은 길이 299.6m, 폭 46.4m, 깊이 26.3m로, 18노트 속도에 최적화된 선형으로 설계됐다. 특히 선박 밑으로 공기를 분사해 마찰 저항을 줄임으로써 주 엔진의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공기윤활시스템(Air Lubrication System)과 디젤발전기의 가동 없이도 주 엔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축발전기(Shaft Generator) 등을 갖춰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이 선박들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제뉴인

소통경영 강화 프로그램 '우사초' 시작

현대제뉴인이 최근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각 직급별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우사초(우리 사장님을 초대합니다)'와 '우신소(우리팀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를 마련, 직원들이 소통에 적극 참여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우사초'는 지원자가 동료들과 함께 메뉴와 장소를 직접 골라 신청하면, CEO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첫 행사 일정이 공지된 후 불과 3분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우사초'는 직원들이 먼저 나서 CEO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만큼 더욱 진솔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신소'는 신입사원이 직접 친해지고 싶은 다른 팀 선배를 초청해 식사를 하며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입사원의 사내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구축 본격화

현대오일뱅크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현대케미칼이 지난 5월 17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생산한 석유제품 3종(나프타, 경유, 항공유)과 석유화학제품 5종(고밀도폴리에틸렌, 저밀도폴리에틸렌, 에틸렌초산비닐, 폴리프로필렌, 부타디엔)에 대해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인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PLUS'를 획득했다. 현대케미칼은 정유·석유화학 통합 공장으로서는 최초로 이 인증을 따냈으며, 이로써 국내 업체 중 가장 다양한 ISCC PLUS 인증 품목을 갖추게 됐다. 현대케미칼은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먼저 6월에는 국내 화장품 및 생활용품 업체와 함께 제품 용기에 쓰이는 친환경 플라스틱의 샘플 생산에 나서며, 친환경 플라스틱을 적용한 신규 고부가 시장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현대일렉트릭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나서

현대일렉트릭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현대일렉트릭 임직원 80여명은 지난 5월 28일 울산 동구의 주전 해안 일원에서 폐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 해초 등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플로깅은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활동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현대일렉트릭 임직원들은 주전 해안 약 1km 구간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각 조별로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와 해초 등을 수거했다. 약 4시간에 걸쳐 수거된 폐기물의 양은 80kg 포대 자루 총 340개 분량에 달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앞으로도 꾸준한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지역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환경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ESG 경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대로보틱스

유럽 서비스로봇 시장 진출

현대로보틱스가 지난 5월 30일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 2022'에서 유럽 최대 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과 '5G·6G 기반 서비스로봇 공동 개발을 위한 사업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사업협력으로 양사는 5G 기반의 차세대 서비스로봇을 함께 개발해 유럽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 서비스로봇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처리를 위한 초고속 통신기술이 필수적이다. 현대로보틱스는 보다폰의 5G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다수의 로봇을 동시에 제어하는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로봇 간 실시간 데이터 교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양사는 방역로봇을 독일 현지 대학병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식당과 호텔 등 다양한 곳으로 서비스로봇을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주목할 만한 이달의 역사

현대중공업 육상 건조 공법, 세계 조선사(史) 신기원 이룩

2004.6

글 웹진편집실
공동기획 현대중공업 사내방송국 HHBS

Editor's Note | 2004년 6월은 현대중공업이 세계 조선 역사를 뒤바꾼 아주 특별한 도전에 나선 시점입니다. 그 도전은 바로 10만 톤이 넘는 선박을 맨 땅에서 짓는 '육상 건조'였습니다. 전례없고 무모해 보였던 이 도전은 훗날 전 세계 조선사(史)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현대중공업 육상 건조의 시작과 성과, 그리고 현재 모습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양 야드에 설치된 현대중공업 육상 건조장의 모습

▲세계 최초 육상건조 LPG선박 'BW 프린스' 호

'맨 땅'에서 지은 선박, 세계 조선업계의 일대 충격 가져오다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2000년대 초반, 몰려드는 일감에 현대중공업 야드도 꽉 차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선주들은 계속해서 선박 건조를 요청해왔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을 거듭하던 현대중공업은 상식을 뒤집는,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선박을 지을 도크가 부족하다면, 땅 위에서 지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땅 위의 선박을 물 위에 띄우는 것이 문제라면, 이미 해양플랜트에서 해답을 갖고 있었다. 이 기막힌 상상은 현대중공업에 의해 현실이 되었다.

사실 현대중공업은 일찍부터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설비 증설을 준비해왔다. 그렇게 현대중공업은 2002년 9월 스웨덴 말뫼에 위치한 코쿰스(Kockums) 조선소에서 1,500톤급 골리앗크레인(이후 1,600톤으로 증설)을 수입해왔다. 이 크레인이 바로 세계 조선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말뫼의 눈물'이다. 높이 128m, 폭 165m로 총 중량만 7,650톤에 달하는 말뫼의 눈물은 현대중공업 육상건조 공법의 핵심이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이 골리앗크레인을 활용해 200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육상건조에 착수, 도크가 없는 해양 야드에서 배를 짓고 완성된 선박을 해양 구조물처럼 바다 위로 띄웠다. 여기에는 해양 설비들을 제작하며 확보한 스키딩 공법(Skidding, 구조물 진수 기술)과 슈퍼리프팅 공법(상하부 구조물을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결합하는 기술)을 결합한 육상총조립공법이 적용됐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전 세계 선주들과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이기에 가능한 발상의 전환이자, 자신감 넘치는 도전이었고, 창조적인 성공이었다.

육상 건조와 함께 글로벌 조선업의 패권을 쥐다

세계 최초의 육상건조 선박은 이듬해 1월 명명식을 거쳐 첫 항해에 들어갔다. 'NS챌린저(Challenger)호'로 이름 붙여진 이 선박은 러시아 노보쉽(Novoship)사의 10만 5,000톤급 원유운반선으로, 도크 없이 건조돼 바다를 누비는 첫 선박으로 세계 해운역사에 기록됐다. 현대중공업은 필요한 높이만큼 들어 올릴 수 있고, 그것을 바다에 띄울 수만 있다면 아무리 크고 무거운 선박이라도 땅 위에서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도크가 없는 조선소,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배를 만드는 본격적인 육상 건조 시대의 개막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후 반신반의했던 선주들의 발주 러시가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노보쉽사에서 동형의 선박 12척을 비롯해, 캐나다 티케이(Teekay)사에서 4척, 카타르 QSC사에서 2척을 육상에서 건조하는 조건으로 잇따라 수주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육상 건조 공법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독자적인 건조 공법 개발을 통해 육상 건조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경제성과 효율성까지 완벽하게 보완해나갔다. 국내 다른 조선사들도 해상 건조와 수중 건조 등 새로운 선박 건조 기술을 앞 다퉈 선보이며, 글로벌 선사들의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해냈다. 전 세계 조선업의 패권을 대한민국이 장악한 순간이었다. 초대형 선박들로 가득 채워진 국내 조선사의 분주한 도크들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이었다.

현대삼호重서 화려하게 꽃 피운 육상 건조 기술력

현대중공업은 2009년 11월 정유운반선 진수를 끝으로, 해양공장 야드에 설치돼 있던 육상건조 선대를 철거했다. 해양사업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육상 건조에 성공한 이후 만 5년 동안 약 50척의 역사를 남긴 채 현대중공업의 육상건조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시기에 축적했던 육상건조 기술력은 영암에서 다시 한 번 크게 꽃망울을 터트리게 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08년 5년 내에 매출 6조 원 달성, 생산능력 2배 확충을 목표로 한 중장기 비전인 'New Challenge 2012'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1,2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2만 6,000톤에 달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로드아웃 시스템, 길이 335m, 폭 59m 규모의 플로팅도크를 완비한 육상 건조장을 구축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울산에서 성공한 육상 건조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 받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땅 위에서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설비와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현재 세계 주요 조선사 가운데 유일하게 육상건조공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월 육상건조를 통해 100번째 선박 건조에 성공함으로써 이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LNG선의 건조 능력까지 2배로 확대해 연간 8척의 LNG선을 연속 건조할 수 있는 전문 작업장으로 육상 건조장을 활용하고 있다. Ⓗ

임직원 참여로 ‘ESG경영 문화’ 구축 나섰다!

현대중공업 ESG경영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글 한국조선해양 ESG전략팀

기후 변화와 감염병의 확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및 윤리 경영 등 전례 없던 위기와 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사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많은 기업들은 ‘ESG경영’에 촉각을 세우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계열사별로 ESG 가치 발굴과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ESG경영의 정착과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참신한 ESG 실천 방안을 발굴하고, 임직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ESG경영 문화’를 구축하고자 ‘ESG경영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모두가 참여해 가꾸어 가는 ESG 문화

우리 그룹은 지난해 11월 '바다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Future From the Ocean)'라는 그룹 ESG경영 비전과 더불어, '비욘드 블루 포워드 투 그린(Beyond Blue Forward to Green)'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ESG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룹의 각 계열사 ESG 추진 조직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 업무에서 ESG 가치를 발굴해내는 한편, ESG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강화해 ESG 문화가 회사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3주간에 걸쳐 'ESG경영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ESG 공모전은 ESG 관점에서 바라본 업무 개선 사항과 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다양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모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ESG 문화가 일부 경영진의 지시가 아닌,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회사의 경영 비전과 연계해 ESG 분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 관련 제안 부문과 ▲생활 실천 아이디어 제안 부문 등 총 2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3주간의 공모전 기간 동안 접수된 제안 건수는 총 479건으로, 업무 관련 제안 부문에서 287건, 생활 실천 아이디어 제안 부문에서 192건이 접수됐다. 특히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사내협력회사 임직원들도 다수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접수된 제안은 총 3단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되었다. 먼저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현대중공업 ESG전략팀에서 1차 평가를 진행, 총 47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에서 선별된 제안들을 주제에 따라 유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아차상과 최종평가 대상으로 구분했다. 마지막 3차 평가에서는 최종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6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하이스퀘어를 통한 임직원 투표와 ESG 기여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2건을 선정하였다.

업무 관련 제안 부문에서는 구매기획부 이상근 책임이 제안한 '동반성장/탄소중립 포털 구축'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상근 책임은 ESG 관련 정보와 실적을 외부기관 대응이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급 등 특정 시점에만 취합하는 것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실적과 동반성장활동 실적 등을 데이터화 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ESG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포털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급망 ESG 관리뿐 아니라 협력회사와의 ESG 관련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 될 수 있어 ESG 문화 확산에 꼭 필요한 아이디어였다.

최근 ESG경영에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공개와 이를 위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공급망 등 벨류체인 전반으로의 ESG경영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활 실천 제안 부문에서는 물류지원부 배진용 책임이 제안한 '운송협력사에 대한 친환경 차량 인센티브 부여'가 최우수상으로 채택되었다. 최근 물류 업계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상용차 보급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물류 전문회사들이 수소 화물차 도입을 늘려가는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물류 시장의 친환경 전환에 발맞춰 수소차나 전기차 등 탄소 발생이 적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 시 가점을 주거나, 친환경 차량을 운용하는 협력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 아이디어의 주된 골자였다. 선도적인 ESG경영 실천이 가능한 배진용 책임의 아이디어는 임직원과 유관 부서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대중공업 ESG 공모전 결과

구분		제안 내용	제안·수상자	부상
업무 개선	최우수상	동반성장/탄소중립 포털 구축	구매기획부 이상근 책임	노트북
	우수상	DT 기술을 활용한 전력사용량 절감방안	외업공사지원부 서장원 책임	호텔 숙박권 및 식음료권
		사내 탄소·ESG포인트 제도 도입	SRM추진팀 조충환 책임	
생활 실천	최우수상	운송협력사에 대한 친환경 차량 인센티브	물류지원부 배진용 책임	태블릿
	우수상	쌀 화환 이용 사회공헌 실천	선실설계부 박지은 책임	호텔 숙박권 및 식음료권
		심장 제세동기 현장 설치 제안	협력사 만석 박태훈	

공모전을 주관한 현대중공업 ESG전략팀은 이외에도 접수된 다양한 제안 가운데 실무 적용 가능성과 기여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 안에서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까지 확산될 수 있는 ESG 경영 활동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개선 아이디어의 경우 '작은 실천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ESG 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ESG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강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대중공업 ESG최고책임자 임영호 부사장과 우수상을 수상한 서장원 책임

▲쌀 화환을 이용한 사회 공헌 실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는 박지은 책임

현대중공업 ESG전략팀 담당임원
류희진 상무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ESG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진행됐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이를 ESG경영에 반영함으로써, ESG 문화가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ESG아이디어 공모전에는 협력사를 포함한 많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우리 회사의 업무와 생활 실천과 연관된 참신한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ESG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보내주신 479건의 아이디어 하나 하나가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해주신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대중공업 ESG경영 실천의 밑거름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공모전 이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 회사의 ESG경영 전략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협조해주신 유관 조직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왼쪽부터 박지은 책임, 조충환 책임, 류희진 상무, 배진용 책임, 임영호 부사장, 이상근 책임, 박태훈 사원(만석), 서장원 책임

수상자 인터뷰

업무 개선 분야 최우수상

구매기획부 이상근 책임

Q. 수상 소감

우리 회사의 첫 ESG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 최근 ESG 관련 업무를 하면서 ESG는 함께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아이디어가 유관 부서와 동료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회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공모전 참여를 적극 응원해준 부서의 배려와 제 작은 아이디어에 공감의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Q.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

현대중공업은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관리와 공개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ESG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협력회사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ESG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협력회사와 ESG경영 실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면, 동반성장지수 및 대외 ESG 평가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Q. 아이디어 활용 방안

동반성장지수와 대외 ESG 평가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집계부터 제출까지의 과정을 전산화하고, 매년 변경 사항을 보충한다면 일관된 등급 관리와 정책의 유지 및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협력사의 ESG 경영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면, 당사의 탄소중립 실현과 협력사 ESG 경영 정착을 지원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활 실천 분야 최우수상

물류지원부 배진용 책임

Q. 수상 소감

먼저 최우수상 수상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아이디어임에도 제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하이스퀘어 투표를 통해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관련 제안을 하면 일이 추가로 생겨 귀찮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장려하는 조직 분위기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듯해 부서와 팀 동료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Q.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

평소 친환경 차량에 관심이 많아 이를 업무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내 ESG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디어를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량은 현재 친환경 차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쿠팡이나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 대형 물류 전문회사들을 중심으로 속속 수소 화물차 운송을 개시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는 경영층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며, 당사 물류 환경을 친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Q. 아이디어 활용 방안

정부의 친환경 상용차 보급 정책에 따라 국내 화물차의 수소 및 전기 트럭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와 거래중인 운송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차량의 사용 비중을 높일 선제적인 시스템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친환경 차량 운영을 통해 정부 주도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ESG 경영 확산과 업계를 선도하는 사례를 만드는데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

‘어르신,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와 희망을 함께 전하는 1%나눔 진지방

글 한국조선해양 사회공헌기획팀

Editor’s Note |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려운 생활 형편 탓에 하루 한 끼 식사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1%나눔 진지방(이하 진지방)을 통해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매일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진지방 사업과 진지방 1호점인 관악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악에서 출발한 1%나눔 진지방, 10년 간 식사 13만 끼 제공

진지방 사업의 시작은 2012년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오일뱅크는 임직원들의 급여 1%를 모아 우리 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계획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했다. 주변을 살피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 한 끼의 식사도 챙겨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불균형한 식습관과 부족한 영양분 섭취로 어르신들은 질병에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굶주림으로 삶의 희망까지 놓아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서울 지역 복지관을 선정해 연간 5,000만원의 식사비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여러 복지기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고,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마침내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첫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우리 주변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자는 사업의 취지를 반영해 이곳을 '1%나눔 진지방' 1호점으로 부르게 됐다.

당시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저소득 어르신들의 인구가 가장 높은데다, 지원 또한 열악해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이곳에 2012년 12월 4일 개소된 진지방 1호점은 매년 4~50여 명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10년 간 500여명 이상의 어르신들께 총 13만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다.

도시락 등 맞춤형 지원으로 코로나 대처

전 국민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취약 계층인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지자체와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던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 등이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코로나 감염보다 더 무서운 굶주림과 싸워야 했다. 고령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영양섭취까지 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 속에서 진지방이 전하는 따뜻한 한 끼 식사는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됐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코로나 확산으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일일 도시락 및 밑반찬을 직접 배달하고, 필수 영양분을 담은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감염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방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결식을 막았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의 상황과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코로나가 하루 빨리 사라져 진지방에 다시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북적이길 기대한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팔방미인 1%나눔 진지방

1%나눔 진지방은 식사 대접뿐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지방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눠드리며,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평소와 다른 특이한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며 안부를 확인한다. 또 가족이 그리운 어버이날이나 기력이 쇠해지는 복날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명절에는 백미, 식혜, 떡, 유과 등의 대체식을 준비해 명절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김장철에는 김장을 담가 나눠드리기도 한다.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미리 음식을 전달해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밑반찬을 집으로 배달해 혼자서 식사를 챙겨드실 수 있게 돕고 있다.

식사 외에도 건강정보를 담은 팸플릿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필요한 치료를 적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등 진지방은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오래오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12번째 진지방 인천에 개소, 따뜻한 동행 계속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1%나눔 진지방은 처음 모습과 설립 취지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 2012년 1호점인 관악을 시작으로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2022년 현재 전국에 총 11개소(관악, 강북, 서산, 부산, 대전, 용산, 울산, 성남, 음성, 영암, 대구)의 진지방을 마련했으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 복지관을 통해 매년 550명 이상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사업장이 있는 인천 지역에 12번째 진지방을 개소할 예정이다.

진지방은 다른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후원으로 그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진지방을 늘려가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었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진지방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께 더욱 건강한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진지방 1호점 - 관악점
오연주 사회복지사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지역돌봄팀에서 재가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연주 사회복지사입니다.

Q. 현재 진지방 관악점에서는 지역 어르신들께 어떤 지원을 펼치고 있나요?

A. 진지방 1호점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주 6회 균형 잡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7회 절기별 특식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년 나기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정보와 건강 관련 교육을 전달하고, 자원 봉사자가 세심하게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Q. 진지방을 찾는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저희 진지방을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은 평균 81세 이상의 고령이십니다. 스스로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진지방을 찾아 영양가 있는 식사를 드시고, 건강 관련 교육을 들으시며 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식사의 만족도나 서비스 등에 대해 설문을 통해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고맙다', '다같이 식사할 수 있어 외롭지 않다' 등 도리어 저희가 감사한 의견들을 건네주셨습니다. 특히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Q. 진지방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진지방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대상자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최근 2~3년간 경로식당 내 취식이 제한되어 어쩔 수 없이 레토르트 대체식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저희 진지방에서는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2~3가지 반찬을 전달, 균형 잡힌 식사를 대접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Q. 진지방을 통해 실시한 봉사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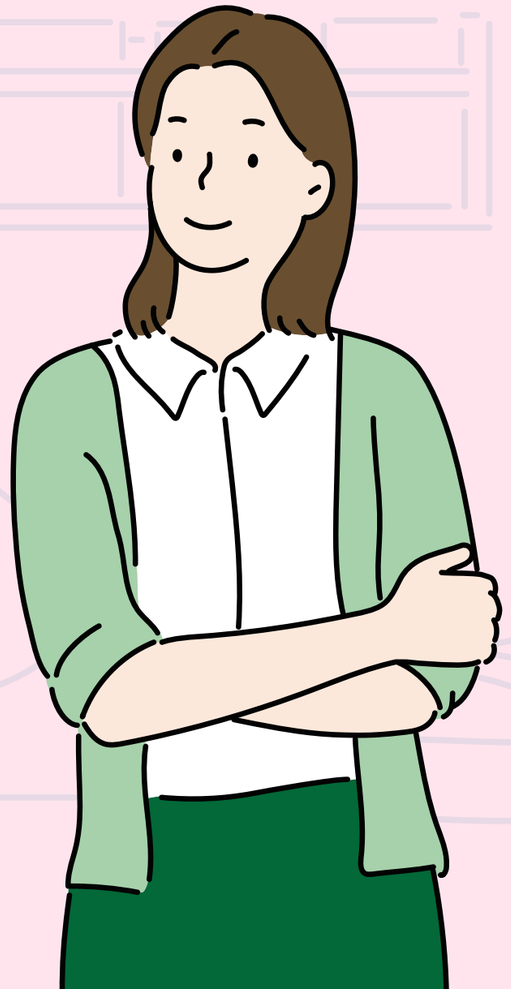
A.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임직원분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특히 경로식당에서 배식과 급식 지원 등 진지방을 찾는 어르신들이 보다 맛있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봉사자들이 삼계탕의 살을 직접 발라주며, 치아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잊지 않고 진지방을 찾아 어르신들과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며 말벗이 되어주셨던 것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실버카를 직접 조립해 주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Q. 어르신들이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매일 직접 만든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혼자가 아닌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임과 나들이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 예전과 달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어르신들이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 여러분 덕분에 지난 10년 간 저희 진지방 어르신들은 따뜻한 식사를 드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류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사회적 고립감으로 상처받은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께 현대중공업그룹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STORY

Trend

Health

Culture

Story +

Hstagram

Quiz

돌아온 함성과 떼창, ‘올 여름엔 공연 보러 가요!’

글 이지은 I 뉴스핌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공연계가 다시금 활기를 띄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2년 넘게 중단됐던 대중음악공연과 각종 페스티벌이 다시 관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랫동안 축제를 즐기지 못했던 관객들은 묵혀둔 갈증을 풀려는 듯 공연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가고 싶어도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인기가 많은 공연은 표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지난 5월 열린 ‘서울재즈페스티벌’은 총 3만 장의 티켓이 불과 3초 만에 모두 팔려나갔다. 오는 6월 18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28회 드림콘서트’의 오프라인 티켓도 오픈 20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른바 ‘피케팅(피 튀기는 티케팅)’ 경쟁이 이어지면서 일부 공연의 티켓들은 두세 배 웃돈을 주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콘서트 재개…좌석간 거리두기·함성 완화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중음악공연은 전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부 공연이 정부의 방역지침 내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좌석 간 거리두기와 함성 및 떼창 금지로 인해 대부분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치뤄졌다. 그러나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대중음악공연 및 대형 페스티벌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오랜만에 열리는 대면공연인 만큼 관객들은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멤버 김성규다. 김성규는 4월 22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네 번째 단독 솔로 콘서트를 개최해 팬데믹 직전 개최했던 2020년 '샤인 앙코르(SHINE ENCORE)' 이후 2년 만에 팬들과 직접 만났다. 이 콘서트는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형 대중음악콘서트라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어르신들의 아이돌로 불리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 역시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전국 투어는 지난 5월 6일 경기도 고양부터 시작해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까지 이어지는 총 21회 규모의 데뷔 첫 단독 전국투어 콘서트다. 임영웅은 일정 동안 전 좌석 거리두기 없이 팬들과 함께 호흡할 예정이다.

공연 재개를 애타게 기다려온 다른 가수들도 속속 콘서트 일정을 잡았다. 스트레이키즈와 하이라이트, 성시경, 임창정, 아이콘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팬들과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호흡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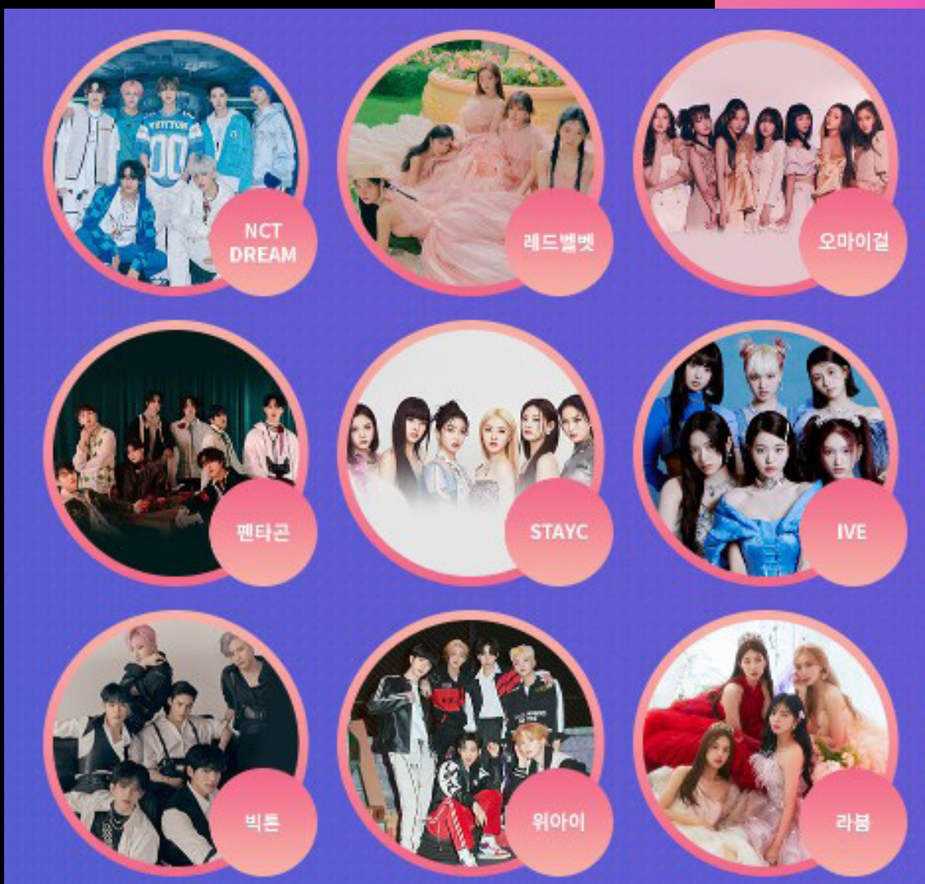
이번 대중음악공연 재개 소식이 더욱 반가운 이유는 바로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공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지만 그간 금지됐던 함성과 떼창은 '자제 권고'로 변경됐다. 덕분에 함성에 목말랐던 아티스트와 팬 모두 공연장에서 함께 소리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예전의 활기를 다시 찾아가고 있다.

줄줄이 관객 기다리는 뮤직 페스티벌

봄과 여름마다 '공연의 꽃'이라 불렸던 대형 뮤직 페스티벌도 다시 관객을 맞는다. 시작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서울재즈페스티벌이었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서울재즈페스티벌는 여느 때보다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핑크 스웨츠부터 고상지, 혼네, 선우정아, 백예린, 호세 제임스, 프렙 등을 내세우며 시작 전부터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음식물 섭취 제한이 사라지면서 페스티벌을 찾은 많은 관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동시에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코로나19 이전의 분위기처럼 공연을 즐겼다.

1995년 시작돼 K팝 축제의 중심으로 성장한 드림콘서트도 곧 팬들과 만난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온택트로만 진행됐던 공연이 재개되면서 3년 만에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공연을 열게 됐다. 3년 만에 찾아오는 만큼 라인업 또한 화려하다. NCT 드림, 레드벨벳, 오마이걸, 이무진, 펜타곤, 아이브, 스테이씨, 엔믹스, 라잇썸, 크래비티, 드리핀 등 내로라하는 그룹들이 총출동해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부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K팝 축제의 중심으로 성장한 2022년 드림콘서트 주요 출연진



오는 25일 열리는 '2022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SPMF)'도 가수 넬, 윤하, 옥상달빛, 브로콜리너마저 등 잔잔하고 기분 좋은 사운드를 선보이는 뮤지션들과 함께 돌아온다. 올해 페스티벌은 관련 정부 지침 및 세부규정에 따라 단일 스테이지 구성과 전 좌석 지정좌석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정좌석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플로어석과 돗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존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대표 록 페스티벌인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개최된다. 2020년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뱀파이어 위켄드(Vampire Weekend)', 한국계 미국인 미셸 조너의 '재패니즈 브랙퍼스트(Japanese Breakfast)' 등 해외 밴드들이 라인업에 포함됐으며, 국내 뮤지션으로는 자우림, NELL, 잔나비, 실리카겔, 김뜻돌, 봉제인간 등이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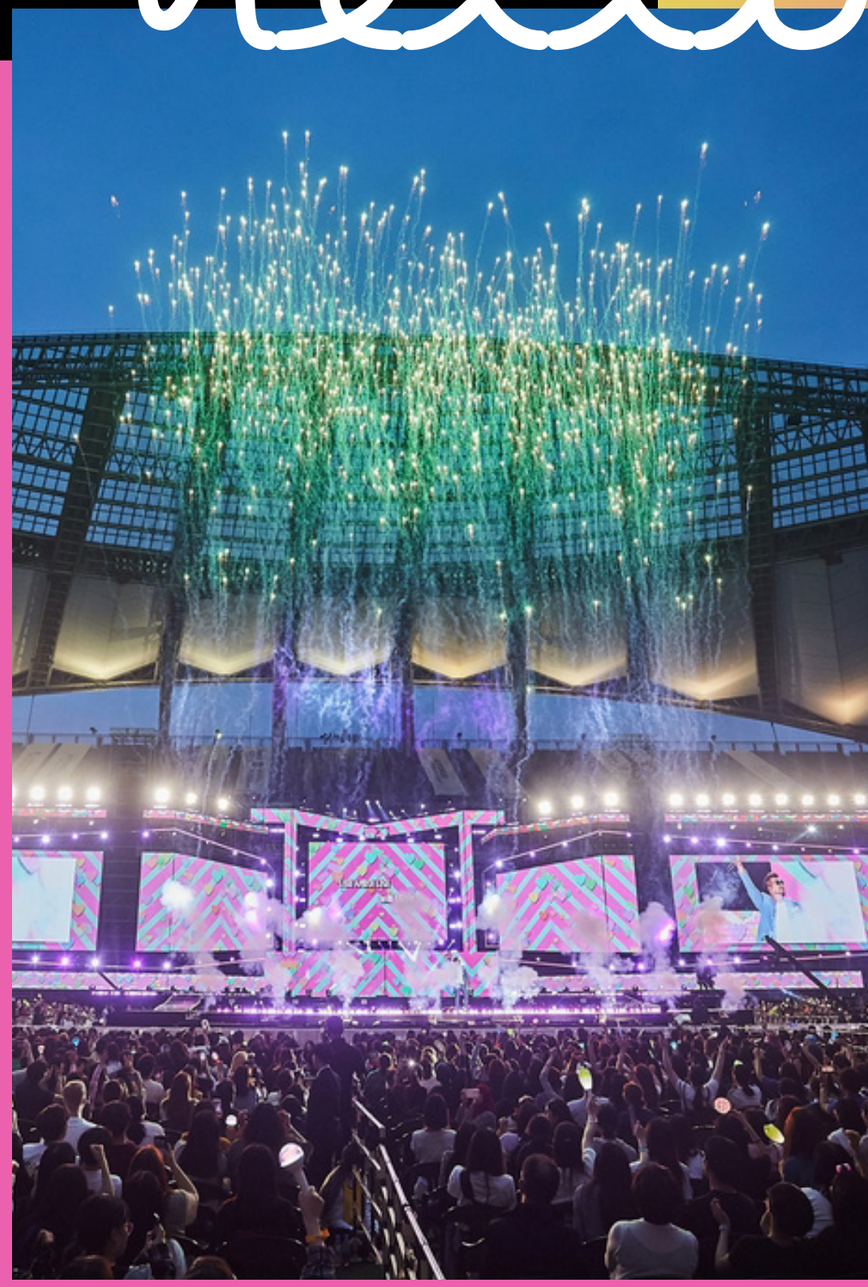
◀2021년 비대면으로 진행된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아시아의 대표 EDM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한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도 돌아온다.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그동안 브랜드 시그니쳐 쇼와 사일런트 디스코, 워터워, 축제마을 등 개성 넘치는 프로그램과 무대를 구성하며, 대형 EDM 페스티벌의 선구적인 역할을 이어온 페스티벌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이 모두 모인 역대급 라인업으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관객을 찾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7월 '워터밤', 10월 '서울뮤직페스티벌' 등이 대면행사 개최를 확정지으며 팬들과 호흡할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공연계는 돌아온 페스티벌의 계절을 반가워하면서도 코로나19 재유행을 걱정하며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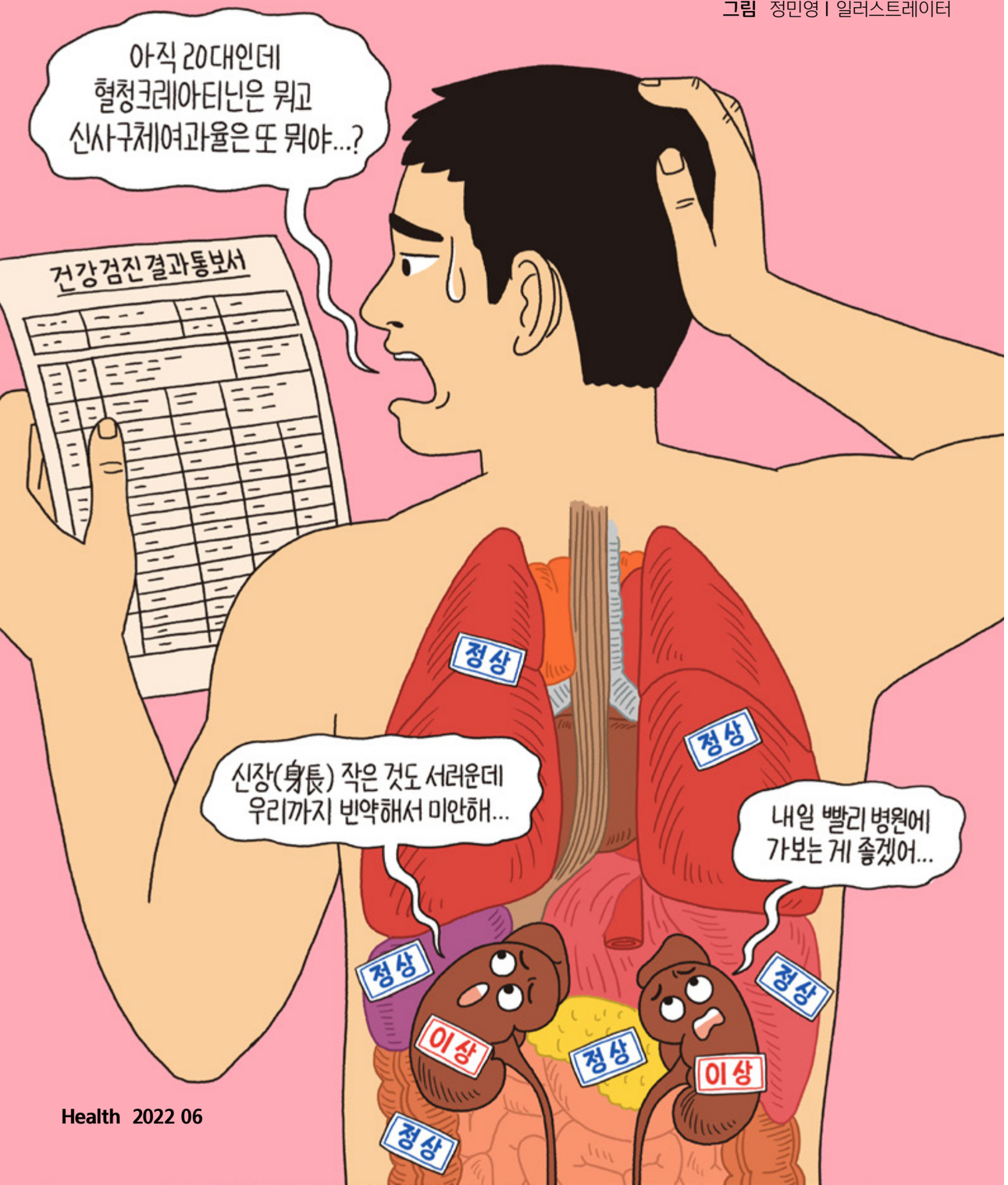
한 공연 관계자는 "뮤직 페스티벌의 경우 한 아티스트가 무대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아티스트를 초청해 개최하는 만큼, 취소가 되면 타격이 더욱 컸다. 거리두기 해제 후 공연계가 이제야 조금씩 예전의 자리를 되찾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구역을 확실히 구분해 공연을 준비하려고 한다. 방역 시스템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개최 시기에 맞춰 다시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019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드림콘서트의 모습

건강검진 결과표, 제대로 보기

글 신보미 I 서울아산병원 건강의학과 건진교수
그림 정민영 I 일러스트레이터



오 매니저는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항목이 정상으로 나왔으나 신장 기능 이상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결과지에 나온 '혈청 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여과율' 등을 검색해 보니 20대 또래 남자들에 비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병원에 전화했더니 의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일단 결과지를 가져와 보라고 한다. 신장(身長)도 작은데, 신장(腎臟)이 좋지도 않다니…. 눈앞이 캄캄한 오 매니저, 대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할까?

간염 표지자 검사는 바이러스성 간염과 관련된 검사이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러스 단백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드는데, 이 항원과 항체를 조사해 간염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A형 간염 항체 검사가 양성인 경우 A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B형 간염 표면 항원이 양성이면 현재 B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는 뜻이다. 급성 감염인 경우 수개월 이내에 B형 간염 표면 항원이 사라지고 항체가 나타나면서 회복된다. 이 항체는 바이러스 중화 항체로서 방어력이 있다는 의미로, B형 간염 예방접종 후에도 양성으로 나타난다.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이라면, 현재 보균 상태이거나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신장 기능은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로 확인할 수 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이며,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상승했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뜻이다. 사구체 여과율은 나이, 성별, 크레아티닌을 이용해 계산한 신장 기능 평가 지표다.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역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사구체여과율 정상 수치는 90 이상, 크레아티닌 수치는 남성은 0.61~1.04mg/dL, 여성은 0.47~0.79mg/dL를 정상 수치로 볼 수 있다.

일반 혈액 검사는 혈액 내 세 가지 종류의 혈구 세포, 즉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혈색소는 적혈구 안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 농도가 부족하면 빈혈로 진단될 수 있다. 적혈구의 정상 수치는 남성 420만~630만/㎣, 여성 400만~540만/㎣이며, 헤모글로빈은 남성 13.0~17.0g/dL, 여성 12.0~16.0g/dL, 백혈구는 4,000~6,000개/μl, 혈소판은 13~40만개/μl가 정상 수치다.

감염 관련 혈청반응 검사 결과는 음성과 양성으로 표시된다. 매독,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헬리코박터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면, 혈액이 매독, HIV, 헬리코박터균 검출 검사에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즉 정상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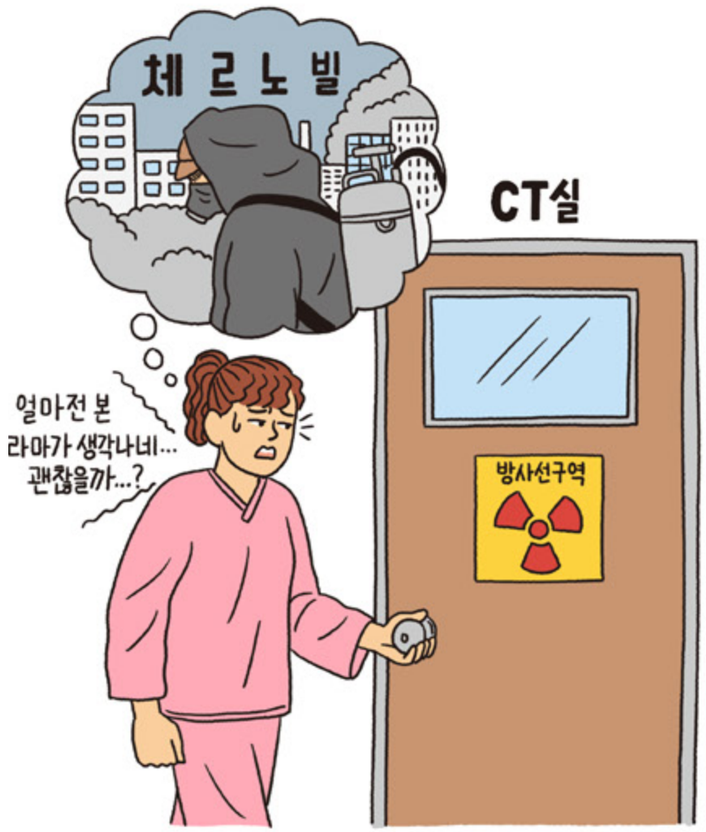
종양 표지자는 암 발생 시 혈액 내에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특정 물질로 종양의 진단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암이 아닌 질환에서도 증가할 수 있고 병이 없는 경우에도 경미한 증가가 있을 수 있어, 종양 표지자 결과 하나만으로는 암을 진단할 수 없다.

소변 검사는 전신 건강의 이상 신호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단백뇨는 소변에 과도한 양의 단백질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며 운동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현미경적 혈뇨는 현미경으로 검사했을 때 소변에서 비정상적인 양의 적혈구가 관찰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 생리, 운동, 외상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양이 많거나 반복되는 경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건강검진, 무엇이 궁금한가요?

#1

X선 촬영과 CT 검사를 하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 아닌가요?



방사선을 한 번 쬐었다고 해서 반드시 세포 사멸이나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기를 통한 진단·치료 효과가 좋다면, 어느 정도의 방사선 노출은 감수해도 무방하다. 문제는 의료기기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했을 때다. 촬영과 검사 시간이 짧을수록 노출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검사 시에는 전문의의 지도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2

건강검진용 소변을 집에서 미리 받아와도 되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소변 검사 때까지 소변을 참는 일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변을 집에서 받아 오는 것은 금물이다. 소변을 2시간 이상 실온에 보관하면 소변의 혈구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산도가 증가하고 당이 감소하는 등 성분의 변화가 우려되므로 소변 검사는 반드시 신선뇨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건강검진 이후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검진은 평소의 생활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지표가 된다. 평소 자신의 식습관이 어떠한지, 운동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의 원인을 되짚어 볼 수 있다. 건강검진 이후에는 전문의와 밀도 있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질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요알못들을 위해 K사우가 간다!

글·사진 웹진편집실
레시피 제공 류관선 | 현대중공업 의장1부

계란과자와 밀크쉐이크 편

Editor's Note | 우리 그룹의 모든 '요알못(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해 K사우가 나섰습니다. 올해 컬처 섹션은 임직원들이 보내준 레시피를 K사우가 직접 요리해보고 평가하는 코너로 채워집니다. 이달에는 추억의 군것질거리 계란과자와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재료 | 버터 154g, 노른자 10개, 박력분 105g, 슈가파우더 130g, 아몬드가루 10g, 바닐라에센스, 우유, 얼음, 딸기(제철과일), 바닐라 아이스크림

계란과자와 밀크쉐이크

실온에 두어 말랑해진 버터를 볼에 넣고 저으며 부드럽게 풀어준다.

풀어진 버터에 슈가파우더를 넣고 섞는다.

달걀 노른자를 분리해 2에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향을 내기 위해 바닐라 에센스나 시럽을 추가한다.

박력분과 아몬드가루를 채쳐 넣고 섞는다.

짤주머니(또는 지퍼백)에 반죽을 옮겨 담는다.

오븐을 170도로 예열해두고, 종이호일을 깐 오븐팬에 반죽을 짠다.

반죽을 예열된 오븐에 넣고 15~17분동안 구워준다.

노릇노릇한 색이 되면 꺼내서 식힌다.

우유, 얼음, 딸기(제철과일), 바닐라 아이스크림 적당량을 준비한다.

믹서기에 갈아 밀크쉐이크를 만든다.

계란과자에 밀크쉐이크까지 완성!

K사우의 한줄평

맛 ★★★★★

달달함 치사량!
행복해집니다.

난이도 ★★★☆☆

대부분 재료를 순서대로 넣고 섞는 작업이에요.

요알못을 위한 Tip

- 오븐 성능에 따라 구워지는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타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세요.
- 쉐이크는 우유, 얼음, 딸기, 아이스크림 순으로 넣어야 잘 갈려요.
- 박력분과 아몬드가루를 섞을 때 반죽을 강하게 누르지 말고 11자 모양으로 가르며 가볍게 섞어 주세요.

※ **유튜브 〈현대중공업TV〉 채널**에서 K사우가 요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사우의 글

내 인생의 관계

글 문성호 | 현대중공업 선박운항연구실

최근 지인의 소개로 '피프티피플'이란 책을 읽었다. 책은 51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옴니버스 식으로 하나하나 담담히 풀어나갔다. 51명의 서로 다른 이야기는 선명하게 혹은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다. '나'의 어떤 부분이 상대의 어떤 부분과 이어져 있냐에 따라 선의 색깔이 바뀌곤 했다. '관계'라는 그 선들이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불안해하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곤 한다.

책을 보며 문득 키보드가 생각이 났다. 자음, 모음, 숫자, 특수문자, 스페이스, 엔터… 하나하나 모양도 위치도 다르다. 이것들의 조합이 하루를 기분 좋게 하는 시가 되기도 하고 때론 사람을 죽이는 악플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필연적으로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어우러질 때, 의미를 가진 문장이 된다. 많이 쓰이는 키가 있는 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키도 있다. 하지만 분명 그 역할이 있고 누군가에겐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어떤 문장에 속해있고 어떤 의미를 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대단하고 멋진 문장이 아닌 맞춤법조차 틀린 문장일지라도, 적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조롱하는 글이 아니었으면 한다.

Editor's Note | Story +는 사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를 모아 함께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사우들 인생의 소소하지만 특별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친 ▭는 무엇인가요? 사람, 사건, 사물,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목과 사연(500자 내외)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우에게 갤럭시 워치4를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잡학사전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 인간관계 이야기

글 웹진편집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Social Animal)'이라고 표현했다. 인간은 태어난 후 필연적으로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타인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정체성을 구축하고, 사고의 발전을 이뤄낸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존 사고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미래학자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개인의 파편화가 가속화되며, 나아가 탈 세계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생겨났다. 즉,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고 사회적 교류가 위협적인 일이 되어버렸기에 '사회적 동물의 퇴보'가 다가온다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관계상, 후렌드·다만추

스마트폰이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관계 형성이 새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즉각적이면서도 공간적 제약이 없는 SNS 소통의 특성과 맞물려 '후렌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후렌드는 Who(누구)와 Friend(친구)의 합성어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에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친구가 되어 소통할 수 있으나, 그만큼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관계의 휘발성 역시 공존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 및 만남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의미의 '다만추 세대'라는 신조어도 같은 맥락에서 생겨났다.

#관계의 부작용, 리셋증후군

사람이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도피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간관계 리셋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리셋 증후군은 1990년대 일본을 중심으로 생겨난 현실도 리셋이 가능할 것이라 착각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인데, 이를 최근 인간관계에 대입한 신조어가 생겨난 것이다. 컴퓨터가 오류가 날 때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유사하게 타인과 관계에서 충돌이 생기면 그 관계 자체를 초기화한다는 의미다. 의욕적이던 사람이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 역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유발되기도 한다.

#타인을 조종하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가스라이팅은 '가스등 이펙트'라고도 불리는데, 영국의 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1938년 연출한 스릴러 연극 『가스등(Gaslight)』에서 주인공인 잭이 부인인 벨라를 심리적으로 몰아가고, 벨라가 수긍하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정서적인 학대로,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투영하거나, 현상에 혼란을 주며 의지하게 만드는 것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의 대처 방안으로 상대방과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가 공감한 '인간관계론'

1936년 미국 출신의 작가이자 강사인 데일 카네기가 출간한 인간관계론은 자기계발서의 고전으로, 전 세계에 6,000만부 이상 판매된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다. 저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소통 방법에 대해 체계적이며 명료하게 설명한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선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있는 책이며, 워런 버핏은 이 책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평가했다. 이 책은 출간된지 80여년이 지났음에도 저자가 소개하는 인간관계 원리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이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시대를 불문하고 전 인류가 공감하는 하나의 주제임을 의미한다.

#가상 인물과의 소통, 버추얼 인플루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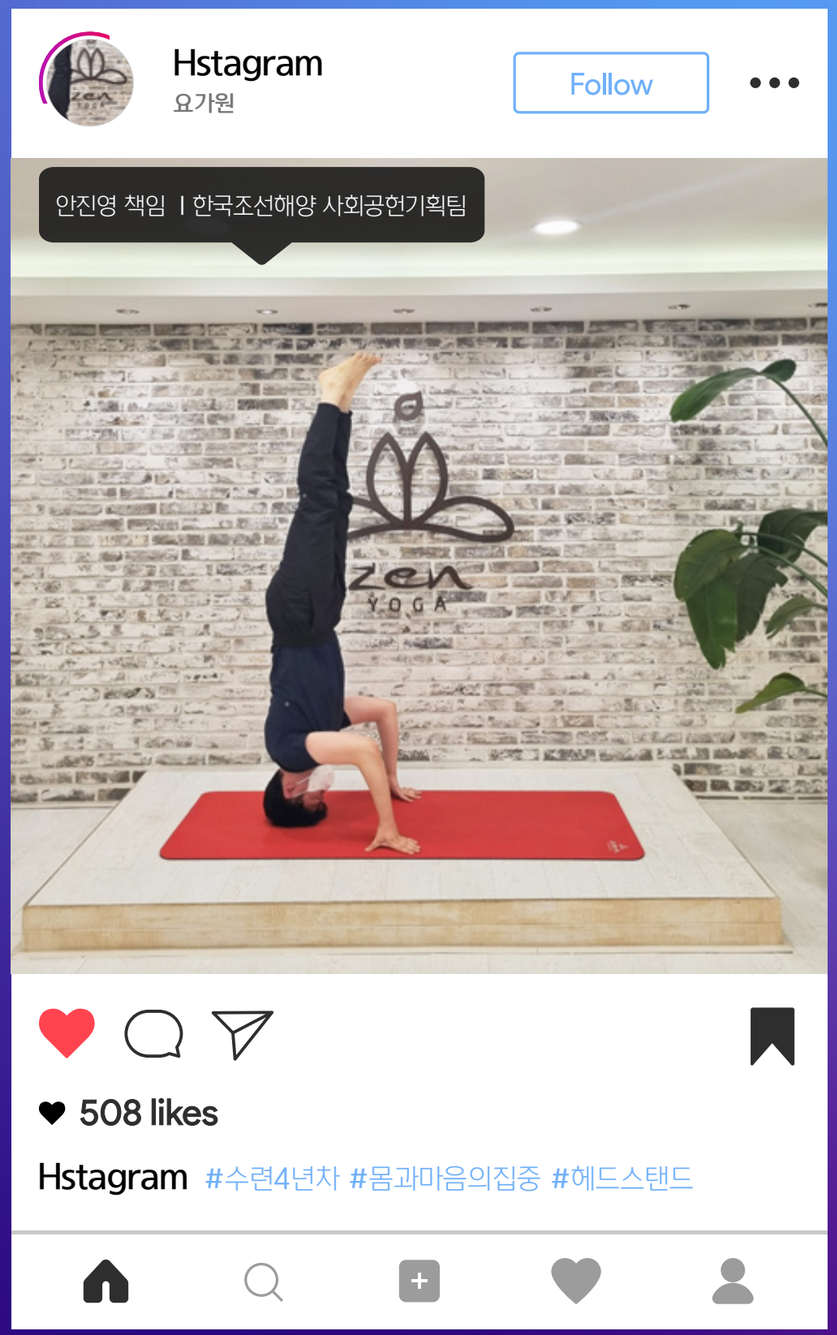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에 사람들이 열광하며 소통하고, 새로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떠올랐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픽을 합쳐 만든 가상의 인물로,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지칭한다. 일례로,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로지는 SNS 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인기를 얻었고, 이후 가요계 데뷔, 광고 CF 촬영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는 이러한 가상 인물을 보고 이질감을 느껴 불쾌하게 인식하지만, 메타버스 및 비대면 플랫폼에 익숙한 Z세대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들에게 환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Hstagram

나의 운동을 소개합니다

Editor's Note | Hstagram은 매달 주제를 정해 사우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6월호에는 사우들의 운동 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7월호의 주제는 '물놀이'입니다.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키워드 3개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사우에게 갤럭시 버즈 프로(베스트 컷 1명)와 문화상품권(6명)을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배예원 사원 | 현대글로벌서비스 유류사업팀

#직장생활엔 #태권도가필요해
#스트레스격파 #MZ세대

송수영 책임 | 현대일렉트릭 마케팅팀

#논두렁Cycling_in_Bali
#자전거타는여자 #달려라니콜

김성복 부장 | 디알씨티에스

#도봉산신선대 #막걸리충전가자
#여기서보이는많은건물중내껀없어

최율아 사원 | 현대건설기계 브랜드전략팀

#바프준비 #선생님이게맞나요
#운동하는여자

부은빈 사원 | 현대건설기계 EHS팀

#등산초보 #신불산 #간월재
#황금빛억새평원

유재선 기사 | 현대중공업 자재운영부

#풋살 #유럽팀과평가전
#퇴근후운동 #선주감독과함께

이번 호에 실린 글을 읽고 아래 퀴즈의 정답을 찾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히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소속 회사, 부서,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기한: 2022년 6월 30일

갤럭시 버즈 프로
(1명)

문화상품권
(10명)

1 세계 최초로 대형선박의 자율운항으로 대양 횡단에 성공한 아비커스가 적용한 인공지능(AI)기반 2단계 자율운항솔루션 이름은?

① 하이프로 2.0 ② 하이나스 2.0 ③ 하이솔루스 2.0

2 6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글로벌 조선해양 박람회 이름은?

① SMM 2022 ② OTC 2022 ③ 포시도니아 2022

3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픽을 합쳐 만든 가상의 인물 중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말은?

① 버추얼 인플루언서 ② 후렌드 ③ 다만추

5월호 퀴즈 정답 **1.** ③ 디지털 트윈 **2.** ① 세종대왕함 **3.** ① 러브게임

당첨자

갤럭시 버즈 프로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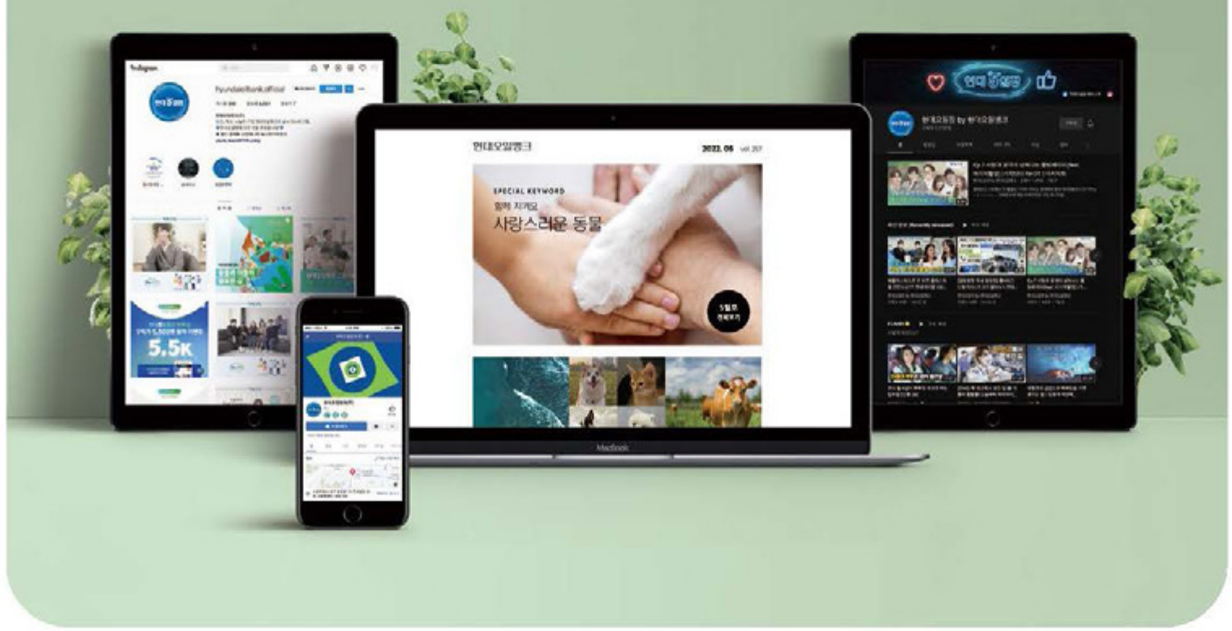
김태호 | 현대미포조선 선행도장부

문화상품권 (10명)

신재형 | 현대중공업 함정개발부
이상용 | 현대제뉴인 유압기능품개발팀
최창모 | 현대중공업 엔진기계경영기획부
김형권 | 현대중공업 특수선종합설계부
김수웅 | 현대중공업 기본설계2부
윤태석 | 현대중공업 조선해양품질경영2부
한동화 | 현대중공업 선박구조혁신과
김민우 | 현대중공업 선실설계부
정현교 | 현대중공업 특수선전무장설계부
최형진 | 현대삼호중공업 전장선실설계부

신난다! 재미난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의 다양한 소식과 활동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보세요.



INSTAGRAM & FACEBOOK

경품이 펑펑 쏟아져요! 현대오일뱅크의
다양한 이벤트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공식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 바로 가기

페이스북
공식 채널 바로 가기

WEBZINE

현대오일뱅크의 친환경 미래 사업 이야기부터
여행, 트렌드 등 다채로운 읽을거리가
담긴 사보 〈현대오일뱅크〉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온라인 사보
〈현대오일뱅크〉 바로 가기

YOUTUBE

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의 일상 브이로그,
고객과의 소통 현장, 현장감 있는 기업소식 등
다양한 영상을 유튜브 공식 채널
'현대오일징'에서 즐거보세요.

유튜브 공식 채널
'현대오일징' 바로 가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거진 H는 사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룹 웹진입니다. 읽고 난 소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점, 소개하고 싶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주세요. 보내실 때 소속과 성함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magazine@hhi.co.kr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www.hyundai-holdings.co.kr

Copyright©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All Rights Reserved